

## 20세기 의복 스타일과 신발의 관계분석

오 현 아<sup>†</sup>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sup>†</sup>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Shoes in the 20th Century Fashion

Hyun-Ah Oh<sup>†</sup> · Soo-Jeong Ba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sup>†</sup>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for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and shoes design in the 20th century fashion through studying changes of fashion styl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length of skirts became shorten, so that shoes can be shown. For the result of that, shoes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its shape, color, material and ornament with having relations with clothes. The 1st World War made fashion to change into economical style. According to that, shoes also changed with regarding its activities and economical efficiency.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he stars fashion influenced on the trends of clothes and shoes. As young generation, who leads fashion trends, prefer easy and active clothes, shoes also changed into easy style, sneakers were worn widely and platform sole was applied into various shoes.

As a result of this study, shoes design was dynamically changed according to fashion style. The study on its functional efficiency is actively studied now however, the study of shoes design is not. When regarding shoes were always worn with clothes, it is impossible to think shoes and clothes are two things, and also I hope the study on relations between clothes and shoes can be more active and consistently implemented.

**Key words** : clothing design, shoe design, 20th century fashion, shape, color, material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Dep. of Clothing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40, Fax : 062-530-1349  
E-mail : sla3l5t@naver.com

## I. 서론

복식미란 의복에 장식품, 장신구를 첨가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김점순, 1994). 이러한 복식미를 이루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장신구(accessory)는 그 착용에 따라 실용적인 목적과 장식적인 목적(이부련, 안병기, 2002)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실용적인 목적의 예로는 모자, 안경, 시계, 신발 등을 들 수 있으며, 장식적인 목적의 예로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실용적인 목적의 신발은 복식 발달과 함께 인간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탈 패션을 지향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자인의 다양화와 함께 더욱 발전하고 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자 신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디자인의 변화 속도 또한 빨라지면서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봉 기술의 발달과 제조 기술의 발전은 신발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중세 이후 극단적으로 심미적인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던 여성의 구두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신기 편안한 구두로 큰 진전을 보였다.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가 발표한 뉴룩의 영향을 받은 앞이 뽀족하고 굽이 가는 하이힐 펌프스나 1960년 메리 퀴트(Mary Quant)의 미니스커트와 앙드레 쿠레쥬(André Courregès)의 미래주의적인 의상에 착용된 새로운 형태의 부츠 등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패션사에 기록되어 있다(김은경, 2001).

이와 같이 신발은 복식미 완성의 중요한 아이템임에도 현재까지 신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고대에서부터 근세까지에 복식사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거나, 신발을 종류별로 분류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의복스타일과 신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계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발의 기원과 20세기 의복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신발 디자인의 변화를 고찰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의복과 신발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 발전하여 왔는지를 문헌 및 현존 유물, 사진,

초상화, 벽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앞서 다룬 자료를 중심으로 20세기 의복 스타일과 신발의 관계를 형, 색, 소재, 장식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문헌 연구는 신발에 관한 서적과 최근 연구논문, 학술지, 복식사와 의류학, 코디네이션에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또한 각종 학술지와 「보그(Vogue)」 「로피시엘(L'official)」 「파르베(farbe)」 등 국내외 패션잡지의 기사와 각종 섬유, 의복 관련 신문과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 II. 신발의 기원

인류의 초기에는 대규모 이주와 재정착 과정을 수천 년에 걸쳐 되풀이 해왔다. 모래뿐인 뜨거운 사막과 암벽으로 된 높은 산, 좁고 눈이 많은 툰드라, 습하고 바람이 많은 초원 등 다양한 지역을 사람들은 맨발로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나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이러한 험난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류는 먼저 동물 가죽 등을 손질해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발이 발명되었는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나무껍질, 나뭇잎, 풀 등을 엮은 후 발에 묶어 샌들(sandal) 형태의 신발을 착용하게 된 것이 최초의 신발이었다(장길환, 1992). 외관상 미적이지는 않았지만, 발바닥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춘 신발이었다.

손으로 만든 신발 중 가장 오래된 이 초기의 샌들은 사용 재료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야자, 파피루스 또는 풀을 엮어 만든 것으로, 발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대마로 엮어서 만들었다.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이러한 형태의 샌들은 일본과 폴리네시아 지역에서부터 클래식스 인디언과 유티족 그리고 현 애리조나 지역의 선사시대 거주자를 포함하는 북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로리 롤러, 2002).

다른 하나는 손질된 가죽을 잘라 가장자리에 구멍을 내고, 이를 가죽끈으로 연결한 형태다. 가죽끈은 샌들이 벗겨지지 않도록 줄라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종류의 초기 샌들 중 하나가 안데스 고원지대인 페루에서 발견되었다. 약 1000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는 이

샌들은 라마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가죽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동안 발가락, 발뒤꿈치 그리고 발 옆면은 5 센티미터 정도 위로 구부러 올려 발 모양의 신발 형태를 잡고, 가죽이 마르면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끈을 차례로 통과시켜 묶는 형태였다. 같은 모양의 샌들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이슬란드와 아시아의 흑해 그리고 카스피 해 사이의 코카서스 산맥 부근과 동유럽의 발트해 주변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착용되고 있다(Russell, 1983).

신발에 대한 최초의 자료는 B.C 2900년경의 석판에 있는 그림으로 이집트에 있는 이른바 '매의 도시' 히에라콘폴리스(Herakonpolis) 사원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1>에 제시된 유물은 나르메르 팔레트(Palette of Narmer)로, 석판의 한쪽 면에는 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적을 응징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다른 면은 열구의 머리없는 시체 앞을 왕이 맨발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옆에는, 손에 왕의 샌들을 떠받치고 왕을 따르는 난쟁이만한 노예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그 샌들은 나르메르(Narmer)왕의 특별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Russell, 1983), 고대 사회에서 신발의 착용은 착용자의 신분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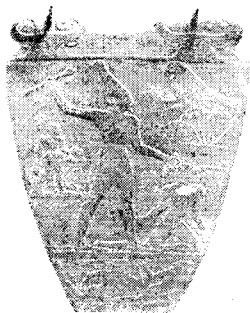


Fig. 1. Palette of Narmer; Egyptian Museum, Cairo; ca. 2990 B.C. (Costume History and Style, p.19)

### III. 20세기 의복 스타일과 신발

20세기 복식의 변화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그런 가운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

치면서 산업화, 과학화,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전반의 변화는 의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량생산에 따른 기성복 산업의 활성화,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의식구조 변화, 각종 예술사조와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대중문화의 활성화 등이 패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패션의 전반적인 발달은 신발에도 영향을 주어 색상, 디자인,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신발의 종류에 따라 20세기 의복 스타일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의복스타일과 신발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1. 1910년대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여성복의 'S'자형 실루엣은 1908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여성들의 화려하게 장식된 'S' 자형 드레스는 바닥까지 길게 끌리는 트레인 스커트(train skirts)로 인해 신발의 모습을 관찰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블 스커트의 등장으로 치마 길이가 짧아진 1910년경부터 신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10년대에는 앞이 뾰족한 펌프스와 단추나 끈으로 채우는 부츠가 착용되었다.

펌프스는 앞이 대체로 뾰족하고 굽이 높은 형으로, 보통 튜블러한 실루엣의 의복과 함께 착용되었다. 1910년대에 폴 푸와레(Paul Poiret:1879~1944)는 발목 길이의 호블(hobble)스커트를 발표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스커트의 폭이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므로 시선을 발쪽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좁디신발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당시에 유행하는 펌프스의 색상은 베이지 색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드레스와 조화가 되는 색의 신발을 착용했다(Wilson, 1969). <그림 2>는 호블 스커트 발목 부분에 끈이 있는 펌프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색채 면에서 모자의 깃털과 네크라인, 소매의 장식과 함께 밝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고 있다.

부츠의 경우 발모랄 부츠(balmoral boots)를 신었는데, 발모랄 부츠란 신발부분은 가죽으로 발목부분은 천으로 만들어져 앞에서 여미는 형태이다. <그림 3>은 전쟁기간의 복식을 보여주는데, 의복에 불필요한 디테



Fig. 2. Hobble skirt, 1914, (SHOES, p.204)



Fig. 3. Laced boots, 1916, (20TH CENTURY FASHION, p.49)

일이 많이 사라진 점과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진 점, 부츠의 장식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복장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츠의 감피 부분에 의복처럼 직물이 사용된 점에서 발모랄 부츠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해 부츠가 많이 착용되었던 시기로, 신발은 소재보다는 색채적인 면에서 의복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기능성을 강조한 의복과 더불어 착용된 부츠에서 경제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 2. 1920년대

1920년대는 더욱 짧아진 스커트와 함께 앞이 뽕족하고 높은 굽의 스트랩 펌프스(strap pumps)가 많이 이용되었고, 스포츠룩이 출현하면서 로힐 펌프스(low heel pumps)가 주로 착용되었고, 브로그에 있어 투톤(two-tone) 스타일이 유행한 점이 특징적이다.

펌프스는 신발의 여밈 부분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스트랩이 있는 것, 스트랩이 없는 것, 리본이 있는 것, 톱크(tongues)가 있는 것 등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으나 특히 스트랩 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이는 짧아진 스커트의 길이가 신발 디자인의 다양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펌프스들은 전반적으로 슬림한 실루엣의 의복과 함께 착용된다(금기숙의, 2002).

이 시기의 복식에 있어 또 다른 흐름은 스포츠 룩이 출현한 것이다. 여성들도 스포츠와 레저에 관심을 보이면서 캐주얼 한 스타일의 스포츠웨어와 레저웨어가 등장하였다. 그에 따라 활동에 편리한 니트웨어와 함께 가는 끈으로 묶는 로힐 펌프스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즉, 스포츠 스타일의 경우 기존의 펌프스에 굽의 높이를 낮게 함으로써 편안함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20년대의 디자이너 샤넬은 여성복에 남성복의 디테일과 디자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1920년대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이미숙, 1998). 당시에 유행한 투-톤스타일의 브로그가 과거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였다는 점에 착안하면, 샤넬이 재킷, 헤어 스타일, 넥타이, 장신구와 같은 남성복의 요소 중 하나인 남성용 신발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는 샤넬이 투톤 스타일의 스트랩 펌프스를 신은 모습으로, 스커트의 물결무늬와 신발 감피의 곡선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으며 신발의 형태적인 면에서 브로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 3. 1930년대

1930년대는 앞이 둥글고 힐이 낮아진 형태의 펌프스, 샌들, 플랫폼, 투톤 슈즈, 부츠, 물, 브로그 등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이 유행하였다.



Fig. 4. Chanel, 1929,  
(현대패션100년, p.90)



Fig. 5. Maggy Rouff, 1936,  
(20TH CENTURY FASHION, p.93)



Fig. 6. Christain Dior, 1947,  
(ICONS OF FASHION, p.62)

당시의 여성복이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고 허리선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면서 슬림 앤 롱 스타일(Slim & Long Style)이 나타남에 따라 우아한 분위기의 펌프스를 신게 되었다. <그림 5>는 30년대 후반의 스타일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하이힐과 긴 장갑의 색을 같은 색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여성스런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색상, 소재, 형태 면에서 전체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인점은 시대 상황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또한 1930년대에는 로저 비비에(Roger Vivier: 1903~1998)가 정형외과의 수술신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한 코르크창을 응용하여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1898~1960)가 플랫폼 슈즈를 선보였다. 이는 전시경제에 이상적인 형태의 신발로 받아들여져 널리 유행하였다. 따라서 웨지(wedge)힐과 플랫폼창은 1930년대 후반에 패션계를 휩쓸었고, 나중에는 상당히 사치스런 소재로 만들어졌다. 1936년에 페라가모는 유을 낸 캔버스를 입힌 코르크 밑창에 금도금한 유리를 붙인 플랫폼 샌들을 만들었으며, 1938년에는 붉은 벨벳을 입힌 플랫폼창을 모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Mcdowell, 1989).

#### 4. 1940년대

1940년대의 대표적인 유형의 신발은 샌들, 펌프스,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발의 유형은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튼튼하고 활동적인 신발이 요구되자 샌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많은 신발 디자이너들은 하이힐의 스트랩 샌들을 만들었다.

펌프스는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ain Dior: 1905~1957)의 뉴룩(New Look)의 영향으로 커팅선이 깊게 파인 하이힐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프로포션(proportion)에 있어 다리가 길어 보여서 키가 크고 우아해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색상은 올리브 그린, 네이비, 레드 같은 밝은 색이 유행하였다. <그림 6>은 뉴룩으로 장갑과 스커트에 검정색, 재킷과 슈즈에 흰 색으로 서로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X자형 실루엣과 뾰족한 힐이 형태에 있어 잘 매치되고 있다.

1937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플랫폼의 영향으로 펌프스나 샌들에서도 플랫폼창이 사용되었는데, 다만 플랫폼창의 높이가 전쟁의 영향기인 전반기에는 다소 낮고, 전후에는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1940년대의 플랫폼은 페라가모에 의해 더욱 유명해졌다.

#### 5. 1950년대

1950년대는 스틸레토, 발레 슈즈형의 펌프스, 로퍼, 스니커즈가 유행한 시기이다.



Fig. 7. Marilyn Monroe, 1955, (www.ya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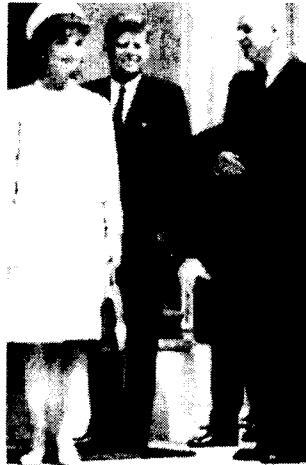


Fig. 8. Jacqueline Kennedy, 1961, (FARBE, p.68)



Fig. 9. Pierre Cardin, 1968, (ICONS OF FASHION, p.83)

1947년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뉴 룩을 발표한 이래로 신발의 모양도 의복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이힐의 굽이 좁아지고 앞끝이 뾰족해졌다. 이러한 대표적인 신발이 스틸레토(stiletto)인데, 굽의 가늘고 긴 형태가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여성스런 실루엣과 잘 조화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의 스틸레토는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제인 맨스필드(Jayne Mansfield) 같은 섹시한 여배우가 착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섹시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Mcdowell, 1989). <그림 7>은 기타를 치고 있는 마릴린 먼로의 모습으로 바디에 피트되는 의복과 함께 스틸레토를 착용함으로써 인체 다리의 각선미가 돋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신발 갑피부분의 깊게 커팅된 선은 다리가 길어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1950년대의 여성복에 있어 또 다른 흐름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확산된 남녀 평등의 사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여성들도 사회생활에 편리한 바지를 착용하게 된 것이다. 캐주얼웨어로 착용된 바지가 정장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신발의 모양도 발레 슈즈형의 펌프스가 유행하였다. 본래 발레 슈즈는 신발의 모든 유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의 200년 가까이 여성의 유연함과 활동의 용이함을 상징해 왔다(Mcdowell, 1989). 따라서 여성들이 바지와 함께 편안한 발레형 펌프스를 찾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1950년대 중반에는 벨기에 농부들이 신던 슬리퍼에서 유래한 송아지 가죽의 낮은 웨지힐과 갑피 부

분에 파이핑과 작은 리본끈이 있는 벨기에 로퍼(belgian loafers)가 1940년 동안 유행하였다(김은경, 2001). 당시의 여학생들은 주로 이 로퍼에 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로 조화를 이루었다.

## 6. 1960년대

1960년대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신발이 유행하였다. 첫째는 당시의 패션리더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1929~1994)가 유행시켰던 로힐 펌프스와 미니스커트에 신은 부츠, 히피들이 애용하던 인도풍의 에스닉 샌들이 그것이다. <그림 8>에 제시된 사진은 재클린이 수트에 로힐 펌프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색이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로힐 펌프스 외에도 볼이 넓은 형태의 스트랩 펌프스, 플랫폼의 펌프스 등이 당시 유행했던 미니멀한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면서 착용되었다.

1965년 메리 퀴트(Mary Quant:1934~현재)가 선보인 미니스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따라 미니스커트와 더불어 부츠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는 가히 부츠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짧은 비틀즈 부츠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롱부츠까지 다양한 길이의 부츠가 착용되었다. <그림 9>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롱 부츠(long boots)로 긴 가죽 장갑과 모자와 더불어 미니 드레스의 미니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츠의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펌프스의 로컬처럼 굽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패션이 짧은이 중심이었고 이들은 의복과 신발에 있어서 활동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굽이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샌들도 1960년대의 다른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낮은 통샌들이었다. 꽃과 구슬로 장식된 히피풍의 느슨한 튜닉과 셔츠, 오버 블라우스 등에는 인도풍의 통샌들이 매우 잘 매치되었으며, 그들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이처럼 간편하고 활동적인 신발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 1970년대

1970년대는 활동적인 여성을 위한 바지의 유행과 더불어 신발은 플랫폼 창 의 통굽형태로 변화하였다. 펌프스, 슬리퍼, 샌들, 부츠가 플랫폼 형태로 신발창과 굽의 높이가 높아졌다.

펌프스와 샌들은 <그림 10>처럼 플랫폼 창으로 인해 힐이 높아지고 두꺼워졌다. <그림 10>은 대리석 문양의 실크 드레스에 플랫폼 창 의 샌들을 신은 복장으로, 샌들의 감피 부분에 코스지(corsage)장식이 되어 의복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부츠도 플랫폼 창이 나타났는데, <그림 11>은 짧은 팬츠와 함께 플랫폼창의 부츠가 매치되어 키가 커보임과 동시에 의복의 재미있는 문양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옥스퍼드의 대표적인 스타일인 브로그와 스니커즈는 1970년대에 와서 더욱 발전했는데, 첫째로 브로그는 1970년대에 하이 패션화되어 디자이너의 패션쇼에 등장한 이후로 캐주얼 슈즈까지도 브로그를 신을 정도였다. 끈 매는 슈즈는 물론 부츠, 버클 슈즈, 태슬 로퍼(tassel loafer)에 이르기까지 브로그의 디자인적 요소가 나타났다. 둘째로 스니커즈의 경우 1971년 런칭한 나이키(Nike)사에서 선보인 조깅화는 당시의 조깅의 유행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다.

### 8. 1980년대

1980년의 신발은 형태, 소재, 색채면에서 다양함을 추구하게 된다. 특히 펌프스는 디자이너들이 전통적



Fig. 10. Chelsea Cobbler, 1972, (VOGUE, p.327)



Fig. 11. Kansai Yamamoto, 1971, (20TH CENTURY FASHION, p.201)

재료에서 탈피하면서 다시 유행하게 된다. 폴리니(Armando Pollini)가 코르셋이나 비스튀에를 만들던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신발을 만든 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신축성 있는 소재로 펌프스를 만들었다(Angela Pattion, Nigel Cawthorne, 2001). 1980년대 초 일본의 경제 성장과 중국의 문화개방으로 동양풍 의복이 서구의 무대에 대거 선보여졌는데, 이때 이러한 의복에 어울리는 동양풍 신발도 같이 등장하였다. <그림 12>는 겐조(Takada Kenzo:1939~)의 에스닉 스타일 의복으로 굽없는 낮은 펌프스와 착용되어 조용하고 차분한 동양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유니섹스 부츠를 주로 제작한 닥터 마틴사의 편안한 워킹부츠가 유행하였다(김은경, 2001). <그림 13>은 1980년대의 대표적인 오버사이즈 스타일로 넓은 어깨의 롱코트, 몸에 꼭맞는 가죽 바지, 하이힐 가죽 부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죽소재로 벨트와 부츠에 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색채에 있어 동일 계열의



Fig. 12. Kenzo, 1983, (ICONS OF FASHION, p.113)



Fig. 13. Claude Montana, 1986-87, (20TH CENTURY FASHION, p.238)



Fig. 14. Hermes, '98/99 F/W, (Mode et mode, p.106)

색을 사용하여 의복과 신발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실 1980년대에 하이힐은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며 어깨 패드와 함께 이 시대 여성의 자신감의 상징이었다(Angela Pattion, Nigel Cawthorne, 2001). 따라서 같은 부츠이지만 1980년대의 부츠는 1960년대의 로힐 부츠와는 달리 하이힐 부츠로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니커즈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유행하다가 1980년대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크게 유행하였다. 리복(Reebok)사에서는 1982년에 부드러운 가죽으로 여성을 위한 에어로빅 슈즈를 만들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이 신발을 실내 운동이나 실외에서 조깅할 때 신어서 크게 유행함으로써 모든 스포츠화 회사에서 스니커즈가 생산되었다. 이것은 2000년대의 스니커즈 유행으로도 이어진다.

### 9. 1990년대

1990년대는 문화 전반에 다양함이 존중되는 시대로, 이는 복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스니커즈, 펌프스, 샌들, 부츠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선보였고, 특히 플랫폼 창은 여러 신발에 응용되었다.

먼저 스니커즈는 운동의 목적만이 아닌 패션과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고급화, 다양화 패션화 되었다. 스니커즈의 유행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경제수준,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는 박스 실루엣의 편안한 정장에 역시 편안하며 활동적인 스니커즈가 매치되어 있는 예인데, 과거의 스타일에 비교해 볼 때 포멀웨어에 스니커즈가 매치된 것은 상당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펌프스 역시 로힐형, 플랫폼형, 하이힐형 등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15>는 플랫폼창 하이힐 펌프스로 에스닉한 분위기의 의복과 매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랫폼 창은 일본의 게다에서 착안되어 선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플랫폼 창은 붉은색과 기모노 스타일에서 변형된 오비의 색이 매치되면서 의복과 신발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샌들은 1990년대에 들어 페라가모, 구찌, 샤넬, 프라다 등의 하이 패션 브랜드에서 심플하고 페미닌한 샌들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프라다를 시작으로 스트랩 샌들이 다시 등장하여 유행하였다.

부츠는 1990년대 길이가 다양한 워킹 부츠와 플랫폼창의 부츠, 하이힐 부츠 등이 나타났다. 중반에는 장화형의 데저트 부츠(deserts boots)가 유행하였고 정장용 신발로는 미니멀한 블랙 나일론 부츠가 등장하였다. 또한 1990년대 영국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스는 1960년대 고고 부츠를 재현하였고, 무릎길이의 플랫폼 부츠가 1997년까지 유행했다.



Fig. 15. Jean-Paul Gaultier, '99 S/S, (Mode et Mode, p.31)



표 1. 신발의 유형

신발유형	형태				주요재료
펌프스					천연피혁(소가죽, 말가죽, 양가죽, 산양가죽, 돼지가죽, 파충류 어류가죽), 합성피혁, 스웨이드, PVC Vinyl, 직물(면, 울, 실크, 나일론, 폴리에스터등)
	하이힐 펌프스	미들힐 펌프스	로힐 펌프스	플랫폼 펌프스	
샌들					
	앵클스트랩 샌들	휘셔맨 샌들	통 샌들	플랫폼 샌들	
부츠					
	롱 부츠	하프 부츠	앵클 부츠	플랫폼 부츠	
옥스퍼드					
	브로그		스니커즈		
로퍼					
	로퍼				

\*굽의 유형은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각 신발형의 굽은 가장 일반적인 굽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IV. 20세기 의복스타일과 신발의 관계분석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는 의복의 변화와 더불어 신발도 속도로 변화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즉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에 맞추어 신발도 각기 다른 스타일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신발의 형태(形態), 색(色), 소재(素材), 장식(裝飾)이 의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20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빈번히 나타나는 신발 스타일을 형, 색, 소재, 장식으로 분류한 후, 의복스타일과 신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의복 실루엣과 신발 형(形)과의 관계

###### ① 펌프스

펌프스는 주로 여성용 신발로서, 힐의 높이에 따라 하이힐(high heel), 미들 힐(middle heel), 로 힐(low heel), 플랫폼 창의 펌프스로 분류할 수 있다. 하이힐은 20세기 초기에는 호블스커트와 미나레 스타일 같은 튜블러한 실루엣과 가르손 록과 같은 슬림한 실루엣에, 20세기 중기에는 뉴 록과 조화를 이뤘다. 또한 1950년대에는 스틸레토라 불리는 하이힐이 선보여져 모래시계형의 실루엣과 함께 매치되었는데, 앞 시기의 하이힐과의 차이점은 뒷 굽의 모양이 가늘고 길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실루엣이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변화함에 따라 굽의 모양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이 유행하는 가운데 하이힐의 펌프스는 여성스러운 스타일과 자주 매치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이힐의 굽과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잘 조화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들 힐은 1930년대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져 비즈니스적인 신발이 필요함에 따라 나타났다(Angela Pattion, Nigel Cawthorne, 2001). 이후 여성들이 사회활동의 참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착용이 증가하였다.

로힐 펌프스는 주로 편안한 스타일의 스포츠웨어와 함께 착용되었으며, 바지가 여성의 캐주얼웨어로 널리 착용된 1950년대에는 발레 슈즈형의 로힐 펌프스도 유행하였다. 재키룩과 에스닉 스타일에도 로힐의 펌프스

를 신었는데 주로 로힐 펌프스에는 그 신발의 편안함에 맞추어 편안한 의복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 창의 펌프스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밀리터리 스타일에 착용되어 남성대신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된 여성들의 편안한 신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전후에는 엘레강스 한 스타일과 매치되어 키가 커보이게 하는 효과에 주력하게 되었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활동적인 여성을 위해 편안한 플랫폼이 착용되었다.

###### ② 샌들

샌들은 발목을 끈으로 묶는 앵클 스트랩 샌들(ankle strap sandals), 로힐 형태의 앞과 뒤가 막힌 휘셔맨 샌들(fisherman sandal), 가죽끈으로 짜서 만든 휘라세(huarache),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한 두개의 끈이 있고 뒤꿈치의 끈은 있거나 없는 비치용 샌들인 통(thong)샌들(김은경, 2001) 등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본 고에서는 20세기에 들어 자주 나타나는 형인 앵클 스트랩 샌들, 휘셔맨 샌들, 통 샌들 그리고 플랫폼형 샌들 네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앵클 스트랩 샌들의 경우 스트랩이 가늘수록, 발등의 노출이 클수록, 힐의 높이가 높을수록 여성스러운 의복스타일과 매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에스닉 의복스타일에 민속조의 느낌이 강한 앵클 스트랩이 조화됨으로써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이끌어 낸 것을 볼 수 있었다.

휘셔맨 샌들은 로힐의 편안한 감각이 돋보이는 형으로 1930년대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에 착용되면서 포멀한 느낌을 주었으며, 비치용, 일상용, 파티용 의복과 같은 다양한 스타일 매치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스타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통 샌들은 주로 히피 스타일과 에스닉 스타일에 신었는데, 가볍고 편안하며 활동적이라는 점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정신과 일치함으로써 히피와 에스닉 스타일에 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③ 부츠

부츠는 발목이 복사뼈 위로 올라오는 긴 장화를 통칭하는 말이다. 길이에 따라 앵클부츠(ankle boots), 하프 부츠(half boots), 롱부츠(long boots)로 나뉜다. 롱

부츠는 일명 니하이 부츠(knee high boots)라고도 하며, 높이는 35cm~38cm 전후인데 부츠를 만드는 가죽은 얇고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것이어야만 다리에 잘 밀착되고 활동하기에 편리하다(장길환, 1992). 롱부츠는 주로 미니스타일과 바디컨셔스(body conscious) 스타일에 매치되었다.

하프부츠의 경우 1960년대 미니스타일과 함께 유행했는데, 의상과 부츠에 동일한 소재와 색을 사용함으로써 통일감을 주었고, 스웨이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가죽과는 다른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였다.

앵클부츠는 20세기 초반에 발모랄 부츠의 형태로 착용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유니섹스 스타일과 오버사이즈 스타일, 미니스타일, 액티브한 스타일에 매치되었다.

플랫폼창 부츠는 1970년대 액티브 스타일에 활동성과 키가 커보이는 착시효과를 위해 착용되었던 이래 지금까지도 같은 이유로 유행하고 있는 형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부츠의 경우 하의의 길이가 부츠 길이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 ④ 옥스퍼드

옥스퍼드는 신을 때 끈을 매는 신발을 말하며 끈을 매는 구멍이 처음에는 한 쌍이었으나 지금은 세 쌍이 보편화되어 있다(임명미, 1984). 옥스퍼드의 대표적인 스타일에는 브로그와 스니커즈가 있으며, 브로그는 신발의 날개, 앞부분에 크기가 다른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독특한 문양장식을 한 것이 특징인데, 이 구멍은 시내를 건너거나 습지를 지날 때 물이 신발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니커즈는 “살금살금 걷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닥을 고무창으로 붙여서 걸을 때 발소리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20세기에는 주로 젊은이들에게 운동화로 착용되었는데,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디자인이 다양화되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액티브 스타일뿐만이 아닌 포멀 스타일에도 착용되고 있다. 또한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운동용 신발로 스니커즈가 더욱 애용되었으며 패션화된 스니커즈가 소재의 고급화, 디자인의 다양화로, 스포츠웨어뿐만이 아닌 포멀 웨어에 까지 착용되고 있다. 이는 21세기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차 때와 장소의 구분이 없이 캐주얼하면서도 동시에

포멀한 의복으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의상을 요구함(정은숙, 2002)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브로그는 20세기에는 외형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단지 착용하는 의복스타일이 포멀 스타일만이 아닌 액티브 스타일에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⑤ 로퍼

로퍼는 굽이 낮고, 신고 벗기에 편리한 신발로, 20세기에 와서 일상용 슈즈나 캐주얼화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는 캐주얼웨어와 함께 많이 착용되었으며,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후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액티브한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로퍼는 형의 변화보다는 장식의 다양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 2. 의복색(色)과 신발색의 관계

#### ① 펌프스와 샌들

펌프스가 의복과 유사계열의 색을 이용한 경우 정적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비되는 색은 활동성 있는 스타일에 이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색의 이용에서는 인체 비례 확장이라는 착시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대비되는 색의 이용에서는 복식전체에서 신발이 포인트가 됨으로써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샌들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 ② 부츠

부츠는 의복과 유사색을 이용한 경우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와 함께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었고, 대비색을 이용한 경우 활동성과 함께 포인트를 줌으로써 슬림한 스타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 ③ 브로그

브로그는 의복과 유사색을 많이 이용했음을 볼 수 있었다. 스니커즈는 1950년대에는 의복의 색과 무관하게 신발을 신었지만,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포멀 스타일에 매치되는 경우 주로 유사색을 이용하여 보수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조화를 유도하는 경우

가 많았다.

#### ④ 로퍼

로퍼는 의상보다 조금 어두운 색상을 착용하거나 유사색을 이용해 의복과 함께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었다.

### 3. 의복 소재(素材)와 신발 소재(素材)의 관계

#### ① 펌프스

의복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펌프스는 주로 엘레강스한 스타일이나 에스닉 스타일에 착용됨으로써 세련된 우아함을 보였고, 가죽 소재는 포멀 스타일, 밀리터리 스타일, 액티브 스타일에 매치 됨으로써 활동성과 함께 경제성이 고려되었다. 또한 에나멜은 전시경제 하에 가죽 부족으로 인해 이용된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 ② 샌들

샌들의 경우 가죽, 직물, 합성피혁 등을 주로 사용했는데, 의복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샌들은 주로 엘레강스 스타일이나 로맨틱 스타일에, 가죽이나 에나멜로 제작된 샌들은 포멀 스타일이나 액티브 스타일에 착용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죽이라 하더라도 장식이 덧붙여짐으로써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플랫폼 샌들의 경우 전시에는 값싼 코르크를 이용함으로써 신발의 소재는 경제적인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코르크 밑창에 유리나 모조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거나 직물을 덧씌워 샌들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 ③ 부츠

부츠는 일반적으로 스웨이드와 가죽이 많았으나 길이가 길수록 소재가 에나멜, 비닐, 신소재로 이루어져 다리에 부드럽게 밀착됨을 볼 수 있었고, 장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 ④ 브로그

브로그는 포멀 스타일에는 가죽소재를 착용함으로써 보수적인 느낌을 주었고, 액티브 스타일에는 직물과

합성피혁으로 제작된 스니커즈를 착용함으로써 활동성을 주었다. 또한 디스코가 유행한 1970년대 의복에는 반짝이는 에나멜 브로그를 매치함으로써 그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⑤ 로퍼

로퍼는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대부분 부드러운 가죽을 이용하였고 소수의 명품 브랜드에서는 그들의 로고를 넣어 짠 직물로 로퍼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 4. 의복 장식(裝飾)과 신발 장식(裝飾)과의 관계

#### ① 펌프스

펌프스는 윗부분의 커팅선이 깊을수록 여성스런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끈 장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로 여성적인 스타일의 의복에 조화되었고, 버튼이나 리본 장식은 활동적이고 경제성이 고려된 의복 스타일에 적용되었다. 이는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자 여성스러움보다는 활동성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으로 장식에 있어서도 정교하고 화려한 형보다는 단순한 형이 유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샌들과 부츠에서도 동일했음을 알 수 있었다.

#### ② 옥스퍼드

옥스퍼드의 일종인 브로그와 스니커즈는 공통적으로 끈을 이용했고 특히 스니커즈의 경우 벨크로를 이용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편리한 기능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퍼의 경우 캐주얼 한 의복스타일과 함께 데슬, 스트랩, 금속체인과 같은 단순한 형의 장식을 다양하게 부착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의복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신발 디자인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의복스타일과 신발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2. 의복과 신발의 관계

신발유형		의복스타일	형, 색, 소재, 장식과의 관계
펌프스		엘레강스스타일 포멀스타일 액티브스타일 재키 스타일 에스닉스타일 밀리터리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힐의 높이가 높고, 굽의 모양이 가늘면, 엘레강스 스타일에 매치 굽이 낮으면 액티브 스타일에 매치 에스닉 스타일은 주로 로힐의 펌프스에 매치</li> <li>· 색-유사색은 엘레강스 스타일에 매치 대비색은 액티브한 스타일에 매치</li> <li>· 소재-의복과 같은 소재를 이용한 펌프스는 주로 엘레강스한 스타일이나 에스닉 스타일에 매치. 가죽·에나멜 소재는 포멀 스타일, 밀리터리 스타일, 액티브 스타일에 매치</li> <li>· 장식-윗부분의 커팅선이 깊은 경우, 끈장식이 있는 경우 여성스런 스타일매치 버튼이나 리본 장식은 활동적이고 경제성이 고려된 의복 스타일에 매치</li> </ul>
샌들		엘레강스스타일 에스틱스타일 포멀스타일 히피스타일 로맨틱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샌들은 스트랩이 가늘고 발등의 노출이 클수록, 힐의 높이가 높을수록 엘레강스 스타일과 매치 앵글 스트랩 샌들은 주로 에스닉 스타일에 매치 통샌들은 히피와 에스닉 스타일과 매치</li> <li>· 색-유사색은 엘레강스 스타일과 에스닉 스타일에 매치 대비색은 액티브 스타일에 매치</li> <li>· 소재-펌프스와 같은 경향을 보임</li> <li>· 장식-코사지나 보석, 끈장식은 로맨틱 스타일과 매치</li> </ul>
부츠		미나레 스타일 액티브 스타일 오버사이즈 스타일 미니 스타일 포멀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하의 헴라인이 부츠의 길이에 영향을 줌</li> <li>· 색-유사색을 이용한 경우 플랫폼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착시효과를 줌 대비색의 경우 활동성과 함께 강렬한 포인트를 줌으로써 시선을 분산시켜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li> <li>· 소재-길이가 길수록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 (스웨이드는 복식에 부드러움을, 가죽은 정형화된 느낌을 줌.)</li> <li>· 장식-엘레강스 스타일에는 끈장식, 포멀 스타일에는 버클, 단추 등을 매치</li> </ul>
옥스퍼드	브로그	포멀 스타일 액티브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큰 변화가 없었음</li> <li>· 색-주로 유사색을 포멀스타일과 매치</li> <li>· 소재-에나멜이나 직물은 액티브 스타일과 매치 가죽과 에나멜로 제작된 것은 포멀 스타일에 매치</li> <li>· 장식-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주로 끈장식을 이용</li> </ul>
	스니커즈	포멀 스타일 액티브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디자인이 다양화</li> <li>· 색-유사색, 대비색을 적절히 이용하여 다이나믹함을 보임 유사색에는 포멀스타일을 매치</li> <li>· 소재-캔버스, 합성피혁, 신소재 등을 이용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임)</li> <li>· 장식-액티브, 포멀 스타일에 끈장식, 벨크로 등을 이용</li> </ul>
로퍼		액티브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변화는 없었음</li> <li>· 색-의복보다 조금 어두운 색상이거나 유사색을 이용하여 액티브 스타일과 매치</li> <li>· 소재-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대부분 가죽이나 직물을 이용</li> <li>· 장식-액티브스타일에 태슬, 스트랩, 금속체인 등을 매치</li> </ul>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속도는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으며, 이런 변화의 물결은 의복 스타일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신발디자인의 변화로 이어졌다. 20세기 전반기의 전쟁은 의복 스타일에 경제성과 활동성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관련되어 신발의 장식은 단순해졌고, 소재 역시 에나멜과 코르크창 등으로 전시 경제에 적합한 경제적인 재료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후 20세기 중반기에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뉴욕이 발표됨에 따라 신발은 하이힐의 우아한 펌프스가 유행하였다. 또한 영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스타들이 출현하면서 이들이 패션리더로써 부각되자 스타들이 착용한 의복과 신발이 대중들에게 유행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의복에 활동성과 편안함이 강조되면서 신발의 굽이 낮아졌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스니커즈의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20세기 후반에는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20세기 중반의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하이힐이 이 시기에는 여권신장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20세기에는 다양한 의복 스타일에 적절하면서도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신발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착용된 의복스타일과 신발의 관계를 형, 색, 소재, 장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형(形)에 있어 펌프스는 힐의 높이에 따라 의복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힐이 높을수록, 굽의 모양이 가늘고 길수록 엘레강스 스타일과 조화를 이룬 반면 굽이 낮은 경우 액티브 스타일과 조화를 이뤘다. 또한 에스닉 스타일은 주로 로힐 펌프스를 착용하였다. 샌들은 스트랩이 가늘수록, 발등의 노출이 클수록, 힐의 높이가 높을수록 엘레강스 스타일과 매치되었으며, 에스닉 스타일에는 주로 앵클 스트랩 샌들이 착용되었다. 특히 통샌들의 경우 가볍고 활동적이라는 점에서 히피와 에스닉 스타일과 매치되었다. 부츠는 하의의 길이가 부츠 길이에 영향을 주었고 바다컨서스 스타일에서는 부츠의 길이와의 관계없이 다양한 길이의 부츠가 착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 브로그와 로퍼는 형태적 변화가 없었음에 비해 스니커즈는 다양한 의복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면서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색(色)에 있어 펌프스와 샌들은 주로 엘레강스 스타

일과 에스닉 스타일에 신겨졌는데 유사색이 주류를 이루었고, 액티브 스타일에는 대비색이 이용되었다. 부츠는 유사색을 이용한 경우 플랫폼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키가 커보이는 착시효과와 함께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었고, 대비색의 경우 활동성과 함께 강렬한 포인트의 역할을 하여 시선을 하체로 집중시켰다. 브로그는 거의 의복과 유사색이 이용됨으로써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 반면에 스니커즈는 유사색, 대비색이 모두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다이나믹함을 보였다. 포멀 스타일에는 주로 유사색의 신발이 착용되어 보수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로퍼는 의복의 색보다 조금 어두운 색상이거나 유사색이 사용되었다.

소재에 있어 펌프스와 샌들은 의복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엘레강스 스타일이나 에스닉 스타일에 착용됨으로써 세련된 우아함을 보였고, 가죽 소재는 포멀 스타일, 밀리터리 스타일, 액티브 스타일에 매치됨으로써 활동성과 함께 경제성이 고려되었다. 부츠는 길이가 길수록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했으며, 같은 종류의 가죽이라도 스웨이드는 복식에 부드러움을, 가죽은 정형화된 느낌을 주었다. 브로그는 액티브 스타일에는 에나멜이나 직물을, 포멀 스타일에는 가죽과 에나멜로 제작된 것을 착용했다. 스니커즈는 캔버스, 합성피혁, 신소재 등 다양한 소재가 이용되었으며,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로퍼는 의복 스타일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죽이나 직물을 이용하였다.

장식에 있어 펌프스는 엘레강스 스타일은 긴 리본끈이나 보석을, 포멀 스타일은 간단한 버튼이나 작은 리본을 부착하였고 샌들은 코사지나 보석, 끈장식을 이용함으로써 로맨틱 스타일과 매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브로그와 스니커즈는 주로 끈장식을 많이 이용했으며, 특히 스니커즈는 벨크로를 부착하여 활동적인 면에서 기능성을 부여했다. 로퍼는 캐주얼한 의복스타일과 함께 태슬, 스트랩, 금속제인과 같은 단순한 형의 장식을 다양하게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은 의복 스타일에 따라 형태, 색, 소재, 장식의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의복과 더불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받았음도 알 수 있었다. 20세기 말 이후 현재까지 의복에 레트로 스타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신발도 같은 경

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의복과 관련되어 신발이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변화, 발전해왔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은 토탈 패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투고일 : 2003년 7월 12일

### 참고문헌

- 금기숙외(2002), **현대패션 1900-2000**, pp.88-89, (주)교문사
- 김선화(1986),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신의 역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1), 20세기 신발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석사논문
- 김점순(1994), 복식발달에 따른 슈즈의 변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로리 롤러(2002), **신발의 역사**, p.17, 이지북
- 이미숙(1998),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련,안병기(2002), **현대와 패션**, p.19, 형설출판사
- 임명미(1984), **옷과 장신구와 옷 입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p.146, 경춘사
- 장길환외(1992), **신발디자인**, p.35, 54, 조형사
- 정은숙(2002), 히피패션이 보보스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2:52
- Angela Pattion , Nigel Cawthorne(2001), **A CENTURY OF SHOES**, p.25, Chartwell Books, INC
- Colin Mcdowell(1989), **SHOES:FASHION AND FANTASY**, p.148, 180, Rizzoli
- Douglas A. Russell(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p.19, Prentice-Hall: USA.
- Eunice Wilson(1974), **A HISTORY OF SHOE FASHIONS**, p.234, Pitman Publishiong:London
- Gerda Buxbaum(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49, Prestel
-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1999), 「20th Century Fashion」, p.93, Thames and Hudson
- Valerie Steele(1999), 「SHOES:A LEXICON OF STYLE」, p.204, Rizzoli